

목포내항 바닷물 역류 침수피해 사라진다

권익위, 저지대 주민 집단민원 중재안 합의 2020년까지 72억 들여 저감시설 설치키로

목포시 동명동·만호동 등 내항 인근에 사는 저지대 주민들이 바닷물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는 중재안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만조 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사는 목포시 동명·만호동 등 내항 인근 주민들은 밀물때 바닷물이 역류해 상가와 주택이 바닷물에 잠기는 피해가 수십 년째 되풀이 되자 지난달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수차례 실무 협의와 현장조사 등으로 목포시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등 관계기관 입장을

조율했다. 중재안에 따라 목포항만청은 시가 추진하는 목포항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과 별개로 목포내항 재해방지 연안정비 사업에 필요한 실시 설계용역비 3억8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오는 5월까지 예산 반영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72억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

다. 시는 시내 재해 구역에 배수 펌프장 2개를 2016년까지 설치하고, 하천과 대하수도 관로 준설사업을 15억원을 들여 10년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으로 해수침수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저지대 주민이 상습 침수피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혁신도시 농협지점 문열어
농협 니주시지부(지부장 최명수)가 지난 24일 금융기관으로는 최초로 니주 혁신도시에 지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금융업무를 개시했다. 지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민들에게 각종 금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니주=정철형기자 chung@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재발 막는다

신안군·목포경찰, 순회교육·신고 전화번호 스티커 부착

신안군이 최근 불거진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교육과 지도단속에 발 벗고 나섰다. 신안군과 목포경찰서, 목포지방고용노동청, 전남장애인단체는 공동으로 28일 신의 초등학교에서 신의면과 천일염 전일염 생산자 242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근로자 채용방법(근로계약서 작성)과 인권침해 예방 요령, 기타 생산자 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군은 흑산면을 제외한 지도읍 등 13개 읍·면 전일염 생산자와 양식장 운영자 854명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1차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농항기(6~7월)에 2차 읍·면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교육 외에도 합동 지도단속 정례화와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협의회를 구성한다. 특히 폭행·감금·임금착취 등 인권유린 행위가 적발되면 1회 적발시 6개월 소급생산 정지, 2회 적발시 소급제조업 허가취소 등 '염전 종사자 고용 지침'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면사무소나 파출소를 직접 찾아 신고할 수 없는 피해자의 입장을 감안해 인권유린 신고 등 13개 읍·면 전일염 생산자와 양식장 운영자 854명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1차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농항기(6~7월)에 2차 읍·면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서남권 광역화장장 1개 추가 건립

도, 화장·개장 지원 강화

전남도가 해남·완도·진도가 연계해 조성을 추진중인 서남권 광역화장장 외에 또 하나의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화장·개장에 대한 장려금 조례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도 올해 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26일 "2014년 장사시설 중장기 5개년 계획과 관련 도청 서재필실에서 시·군 장사 담당자들과 함께 화장률 증가 방안 등 앞으로의 장사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는 추가 광역화장장 건립 추진, 화장 및 개장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논의했다.
또 도내 유명 관광지 주변에 묘지가 많은 2~3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화장 및 화장장을 원하는 묘지주인들을 대상으로 화장해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일괄 개장해 자연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지난 2012년 기준 전국 화장률은 74.4%인 반면 전남지역은 57.4%에 머물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k@kwangju.co.kr



옛 목포 일본영사관 '근대역사관' 탈바꿈

내일 개관식

옛 목포 일본영사관(국가사적 제289호)이 목포 근대역사관(본관)으로 탈바꿈했다.

목포시는 28일 오후 5시 문화재청 관계자와 4·8 독립만세운동 진원지인 정명여고생 40여명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목포 근대역사관(본관) 개관식을 갖는다.

목포 근대역사관은 1897년 10월 목포개항 이후 일본의 영사업무를 위해 지어진 2층 석조 건축물이다. 건립된지 114년이 지났지만 근대건축물 가운데 목포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크다.

시는 이곳에 19억원을 들여 2년간에 걸쳐 전시관과 방공호, 수장고 시설에 대한 전시설계 및 전시물 설치공사를 마무리했다.

리모델링을 마친 목포 근대역사관은 1890년대 개항기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의 목포 지역 정치·경제·문화·항일운동에 관련된 다양한 유물 100여점을 선보인다.

대표적인 전시 유물로는 1903년 무안 감리서에 정3품 통정대부 김성규를 무안 감리에 임명했다는 고종의 '감리 칙명서' 진본이 있다. 또 1930년대 일제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들이 사용한 토지 측량기 진품,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키고자 광고했던 '조선농업 이민 모집' 등 다양한 자료가 전시된다. 특히 1940년대 태평양 전쟁 당시 방공호 파기에 강제 동원돼 노역하는 모습을 디오라마(diorama=배경 위에 모형을 설치하여 하나의 장면을 만든 것) 기법으로 사실감 있게 재현했다. <사진>

또한 목포 근대역사관은 독립기념관과 국가기록원의 협조를 받아 1919년 3·1 만세운동 때 사용된 독립선언서 복제본을 선보인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목포 근대역사관에서 다양한 역사교육과 함께 특별전을 열어 목포 원도심의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봄꽃들의 합창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하우스내에 팬지 등 각각양색의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센터는 올해 가로화단 등에 봄꽃을 식재할 계획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완전할인 요금제 출시 기념!

가입 축하 이벤트

★ 매일 5분만 통화하면 기본료가 완전 무료!

기본요금 완전무료

매일 5분만 통화하면 기본료가 완전 무료!		다양한 최신 피쳐폰 단말기로 더욱 저렴하게!	
11,000원 (데이터 요금 별도)	150분 이상 통화 시 기본료 비교	11,000원 (데이터 요금 별도)	150분 미만 통화 시 기본료 비교
	100% 절감		55% 절감
	0원 (데이터 10M 무료)		5,000원 (데이터 10M 무료)
A사	헬로 모바일	A사	헬로 모바일

삼성 애니콜 노리2

LG 와인샤베트

삼성 애니콜 미니멀폴더

* 해당 월 음성 통화 요금 발생 시 기본료 10,000원 할인 적용 (2년 약정시, 150분 이상 음성 통화 시 기본료 5,000원 추가 할인 적용 (2014년 12월 31일 기한 내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60만 고객의 선택! 알뜰폰 1위 헬로모바일

www.cjhello.com